것이 최선의 '선' 공부"

…졸리면 자고 그러지"
…요즘도…."

…. 법당 둘레가 온통 산이다.
…華山). 고려시대 원나라 비구
…이곳에 이르는 꿈을 꾼 뒤 찾
…나 있어 암자를 짓고 수행을
…다 옆에 법천사를 짓고 수행

… 계신다는 목우암(牧牛庵)에
…에서 목우암에 이르기까지는
…만 다소 멀게 느껴졌다.

큰스님

… (목우암 주석)



◇일의 과정을 즐기라는 금산스님. 스님은 성불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공부시키는 선승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을 잡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아…의 가까운 지인이라도 "오셨는가" "가시는가"가 전부라고 한다.

1928년생인 스님은 56년 월정사에…출가해 지암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비구계를 수지하고 이후 31안거

…사람 막지도 않아

…성만했다. 63년 월출산 도갑사 주 …64년 조계종 감찰원 감찰부장을 …임한 뒤 67년 지리산 화엄사 주지, …년 동리산 태안사 금강선원장, 91 …내장산 내장사 백련선원장을 지내 … 이후 이곳 목우암에서 11년째 주 …해왔다.

…등의 힘으로 정진하다보면 올바른 수 …관을 체득할 수 있게 되지. 요즘에 …선방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으로 바람직한 일이야."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비구 …스님이 삶은 감자를 내왔다. 문득 감 …를 싫어하시는 아버지가 떠올랐다. …하던 시절, 감자로 끼니를 때웠던 …아버지 세대의 고충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감자마저도 없어 고픈 배를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터, 금산스님도 그랬다.

"한참 공부할 때 하루 한 끼로 살았지. 양식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탁발을 해서 저장해 놓고 아껴 먹으면서 한 철을 나곤 했으니까. 김치가 없어서 소금으로 반찬을 대신한 적도 많았지. 하지만 한 철 나고 나면 얼굴에 뼈만 남았을망정 무엇인가 얻었다는 느낌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계율무시 선수행 잘못된 것
재가자는 대중수행 알맞아

금산스님은 흰 눈썹만 아니라면 75세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름살 하나 없는 건강한 얼굴이다. 91년 내장산 내장사 백련선원장으로 계시다가 문득 이곳을 찾아오셨다는 스님. 그냥 산이 좋아 오셨다고 하셨다.

스님이 계신 방 창문 너머로 '보임선방'이라는 굵은 글씨의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재가자들이 선수행을 하는 곳이란다. 어디서 온 누군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수행을 한다면 누구든 자리를 틀고 앉을 수 있다는 이곳. 하지만 스님은 어떤 사람에게든 단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하신다.

"마음을 열어야 해. 스스로 열지 않고 무엇이 열리길 바래. 내가 부처요, 천지가 부처라는 그 마음을 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지. 화두를 들든, 염불을 하든 자기를 봐야지. 그래야 마음이 열리지. '반문문자심 심성무상도(反問問自心 心成無尙道)'라 했어. '안으로 돌이켜 내 마음에게 묻고 또 물어라. 그러면 그 마음이 더할 나위없는 큰 도를 이룬다'는 뜻이지. 스스로 묻고 또 묻는 그 마음이 곧 불성이요,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불성을 찾는 일이지요."

스님은 매주 첫째, 셋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참선법회에서 재가불자들을 지도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법회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스님께서는 가르침을 청하는 재가불자들에게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하라는 가르침이다.

"선에는 화두를 드는 선도 있고, 염불하는 선도 있고, 묵조하는 선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는 일이지. 평생 관세음보살만 외던 사람에게 화두를 들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야. 지적(知的)인 사람에게는 화두를 드는 선이 좋고,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묵조선이 적합해. 화두 없이 그냥 앉아서 자기를 비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염불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서 수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테고. 염불이 무슨 선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마음이 부처라' 생각하면서 염불을 한다면 그것도 선이지. 선이라는 것이 내 안의 부처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된다는 생각은 옳지 못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활과 선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지. 무심하게 일의 과정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선공부가 또 어디 있겠나."

승돌이와 승이가 꼬리를 흔들어 댄다.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컹컹 짖어대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녀석들이 이제는 제법 친한척을 한다. 삼존불이 모셔져 있는 법당 앞마당에 석등 하나가 머리에 파란 이끼를 두른 채 지나온 세월의 깊이를 헤아리고 있다. 대나무 울타리에 법당과 축성각, 요사채가 전부인 목우암. 그래도 금산스님은 이곳처럼 훌륭한 절도 없다고 하신다.

"8년간 전쟁 끝에 천하를 통일한 중국의 순치황제가 2년간 통치를 하다 출가하고 나서 한 말이 있지. '평생 산 것이 스님이 돼서 반나절 산 것만 못하다'고 말야. 죽으면 모두 뎃없고 부질없는 것을 왜 그리 욕심을 부리고 다투는지…."

어느 학자는 한국불교가 선에 매몰돼 하화중생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길은 나 있는 것만으로도 그 본래의 의미가 있는 법.

'누가 묻지 않으니 답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내놓으라는 것일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하화중생인 것을.'

금산스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옷매무새, 가지런히 놓여 있는 고무신. 우리네 그것을 떠올려보니 문득 부끄러움이 앞선다. 온종일 바람과 새들만 들락거리는 무심한 하루. 아무리 조주선사의 차 맛이 좋다고 해도 목우암의 하루만 할까. 지혜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느낌. 누군가 승달산의 경치를 묻거든 흰 눈썹 성성한 올곧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말하리라.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우스님

부처님의 설법을 수기설법(隨機說法),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각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가르침을 설하셨고 중생들의 뭇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다. 교학에서 이런 근기에 대한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스님들에게도 이 용어를 적용시키고 있다. 중생들 삶의 방식이 다양하듯, 스님들 수행 방식에도 여러 갈래 길이 있다. 옛부터 불가에는 상근기가 선방에서 수행정진하고, 중근기가 경전공부 통해 강의를 하며, 하근기는 가람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 있다.

내가 보기에 말 그대로 상근기 중 상근기가 바로 지우스님인것 같다. 한마디로 지우 스님은 참 열심히 산다. 선방수좌로 화두를 챙기는 일은 물론, 화문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절을 수호하는 데에도 단단히 한 몫 하고 있다. 스님은 운문강원에서는 선배로, 대학원에서는 후배로 인연이 맺어졌다. 스님은 강원을 졸업한 뒤 7~8년간을 선방수좌로 오로지 화두챙기는 일에만 전념하다가 교학에 대한 갈증과 참선하는 데 대한 정립이 필요했다고 한다. 이런 목마른 갈증을 해소코자 중앙승가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 후 동국대 대학원에 들어갔다. 스님은 주위에서 '선객으로 남아 있지 무슨 세속공부냐'고 염려스런 충고도 들었다고 한다.



스님은 이에 대한 답변처럼 내게 자주 "대학공부를 한 것에 후회는 없다. 학업의 길에 들어본인이 책임지고 학비를 마련해야 하고 서울이라는 곳에서 의식주 짐까지 떠맡다보니 수행이 아니라 삶의 고달픔도 함께 배웠으며, 중생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되어 도리어 수행이나 포교에 도움이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교(敎)를 하다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마음을 선(禪)이라 하고 말씀을 교(敎)라 한다면, 수행자는 선교일여(禪敎一如)한 수행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열반경〉 성행품에 '흑암녀 공덕천 이야기'가 나온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에 수반한 좋지 않은 일이 꼭 생긴다는 것이다. 한평생 승려로서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구도자의 투철한 일념의 바퀴에도 가끔 핑크가 난다. 병고이다.

자비문중을 표방하지만 불가에서 병든 스님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거나 보살피는 곳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어찌 보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그럼에도 근 25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청정승단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은 역대 스님들의 수행에서 나온 힘이 아닌가 싶다. 주위의 병든 스님네들에게서 한결같이 "옛 조사스님들이 수행자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병고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치유하는 약으로 삼고 수행방편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도 불문에 들어선 지 20년이 넘었지만 육신의 병고를 겪는 스님들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온다. 지우스님은 바로 수많은 병고를 겪어온 스님이다.

급성폐렴, 갑상선, 자궁수술, 발목부상 등 참으로 가지가지로 아픔을 끌어안고 있었다. 아무리 수행자지만, 회의감이 없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참 꿋꿋하다. 몇 년전 대수술을 받은 두어달 뒤, 대학원 수업에 임했으니 말이다. 스님은 병고를 치르면서 힘이 부칠 때는 "이것이 업장소멸하는 길이며 육신의 고(苦)를 인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병마라는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도 인생의 순리이거니, 수행자는 아픔이 클수록 깨달음의 깊이도 깊을 것이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한다. 아픔을 통해 성숙된 수행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맞는 말이다. 병고를 치른 지우스님은 처음 보았을 때보다도 무척이나 편안해 보였다.

참선·교학공부 모두 열심
"많은 병고 인욕으로 승화"

선방에서든 학교에서든 포교를 하든간에 어느 위치에서건 최선을 다하는 것, 그저 묵묵히 무소의 뿔처럼 열반의 언덕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가 상근기지, 참선만이 상근기요, 포교가 하근기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정한 상근기는 자신이 상근기라는 것조차 염두에 두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일 것이다.

지우스님은 매사에 열심이다보니 노래실력도 대단하다. 원래 스님은 음치도 보통 음치가 아니었다. 헤비급 수준의 음치인데도 본인은 상당히 노래를 잘한다고 여긴다. 대학원에서 학기마다 답사를 가면 꾀꼬리같은 목소리라고 자부하면서 박자도 맞지 않는 노래를 끊임없이 흥얼댄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대단하다.

스님은 현재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내원사에서 하안거 한철 공양주소임을 자청하였다. 결제에 들어가기 전 이런 말을 했다. "스님들도 부지런히 복을 쌓아야 해요. 복은 쌓지 않고 지혜만 추구하면 매사에 장애가 옵니다. 이번 철, 한소식 할 만큼 열심히 정진하고 싶어요."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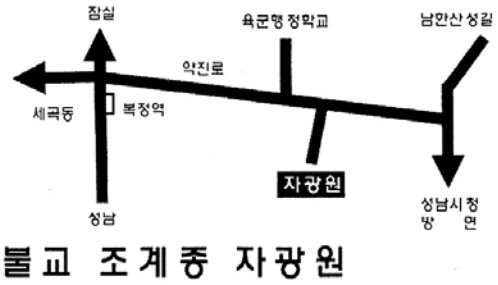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여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